



16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의 마라카낭지뉴에서 열린 네덜란드와 2016 리우 올림픽 여자배구 8강전에서 세트 스코어 3 대 1로 아쉽게 4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여자배구대표 선수들이 관중을 인사하고 있다.

44년만에 올림픽 단체 구기 종목 '노메달'

40년 기다린 여자 배구 8강 탈락 네덜란드에 1-3 패 레슬링 류한수 메달 획득 실패... 네번째 그랜드슬램 무산 배드민턴 여자 단식 간판 성지현 4강 진출 좌절

40년을 기다린 올림픽 메달 획득의 꿈이 또 다시 4년 뒤로 미뤄졌다. 한국 여자배구는 올림픽 8강에서 주저앉았다. 한국은 16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지뉴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배구 8강전에서 네덜란드에 1-3(19-25 14-25 25-23 20-25)으로 패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김연경(페네르바체)을 앞세워 1976년 몬트리올 대회(동메달) 이후 40년 만의 메달을 바라왔던 한국은 북변 네덜란드의 벽에 막혀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4년 전 런던 대회에서는 4강에 진출했지만 이번에는 토너먼트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1. 2세트를 허무하게 한담한 것이 아쉬웠다. 고질적인 리시브 불안은 선수들의 발걸음을 무너지게 했고 이는 공격력 약화로 이어졌다. 공격에서는 김연경 홀로 빛났다.

27점으로 고군분투했다. 믿었던 양효진(현대건설)과 김희진(IBK기업은행)은 각각 10점과 5점을 얻는데 그쳤다. 김연경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는 양효진 뿐이었다. 배구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이 출전한 마지막 단체 구기 종목이었다. 한국이 올림픽 단체 구기 종목에서 '노메달' 성적표를 써낸 것은 1972년 뮌헨 올림픽 이후 44년 만이다. 한국 레슬링의 류한수(28·삼성생명) 역시 메달 획득에 실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박장순, 심권호, 김현우에 이은 한국 레슬링 사상 네 번째 그랜드슬램(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아시아선수권 제패) 도전도 무산됐다. 남자 그레코로만형 66kg급 8강전에서 미그란 아르티우니안(아르메니아)에게 1-2로 패하며 준결승 진출에 실패한 그는

패자부활전에서 아흐메드 샬레흐 카흐크(이집트)에 5-0으로 승리한 뒤 동메달 결정전에 나섰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의 라슬 추니예브에게 0-8 압도적 패배를 당하며 4년 뒤를 기약해야 했다. 한국 남자 사이클의 임채빈(25·금산군청)과 강동진(29·울산시청)은 경륜 2라운드 진출에 나서지 못했다. 임채빈은 1라운드에서 1조 6위에 머물러 각 조 상위 2명이 오르는 2라운드 진출에 실패, 패자부활전으로 밀렸다. 강동진은 2조 3위로 아쉽게 2라운드 직행 티켓을 놓쳤다. 패자부활전에서 임채빈은 9초581을 기록한 2조 1위 크시슈토프 마셀(폴란드)에 0.047초 뒤져 2위에 그쳤다. 강동진은 막달에 0.123초 뒤진 기록으로 3위에 머물렀다. 패자부활전에서의 2라운드엔 티켓은 각 조 상위 1명에게만 주어진다.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인 성지현(25·MG새마을금고)은 세계랭킹 1위의 아성을 넘지 못하고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세계랭킹 7위 성지현은 여자 단식 8강에서 세계랭킹 1위 카롤리나 마린(스페인)에게 0-2(12-21 16-21)로 졌다.

4년전 런던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아쉬움을 남긴 성지현은 첫 메달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렸지만 8강 진출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은 전날 여자단식에서 배연주(26·인삼공사)가 16강에서 탈락한 데 이어 성지현까지 패하며 여자단식 메달리스트 배출 꿈이 무산됐다. 한국 요트 대표팀 김창주(31·인천체육회)·김지훈(31·인천체육회)은 470 2인승 당기 종목에서 최종 10차 레이스까지 넷 포인트 148점을 기록해 전체 26개 팀 중 19위를 기록했다. 메달레이스는 상위 10개 팀이 진출한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 최강자로 자리 잡은 김창주·김지훈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레이스 진출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메달 추가에 실패한 한국은 금 6개, 은 3개, 동 5개로 종합 11위를 기록 중이다. 미국이 금 28개, 은 28개, 동 28개로 종합 1위를 질주했고, 영국(금 19개·은 19개·동 12개), 중국(금 17개·은 15개·동 19개)이 뒤를 이었다. 북한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1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민근기자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교류 개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청소년들의 국제경기 참여 경험을 늘리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제20회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교류' 행사가 17일 환영연을 시작으로 5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전주 르윈호텔에서 일본선수단 및 임원, 내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환영연에는 대한체육회 강영중회장, 김일재 전라북도행정부지사, 황현 전라북도지사,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교류는 양국 선수 433명이 참가해 초·중·고남·남자 축구와 남·녀 농구, 배구, 탁구 등 5종목을 대상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교류행사는 20일 종목별 공식경기와 환송연, 21일 문화행사 탐방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러시아 도핑 적발 베이징 여자 400m 계주 금 박탈

러시아가 도핑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여자 400m 계주에서 딴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CBS스포츠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7일(한국시간) '베이징올림픽 기간에 채취한 러시아 육상 선수 율리야 체르모산스키아의 샘플에서 2가지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그의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르모산스키아의 샘플에서 나온 금지약물은 스테로이드 계열인 스타노졸롤(stanozolol)과 튀리나볼(Turinabol)이다. 스타노졸롤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지난 1988 서울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금메달을 박탈 당했던 캐나다 육상 선수 벤 존슨이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튀리나볼은 체력과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이다. 이에 따라 체르모산스키아를 비롯한 러시아 여자 육상 400m 계주팀 전부가 금메달을 잃게 됐다. IOC의 이번 결정으로 당시 2위를 기록한 벨기에가 1위로 올랐고, 나이지리아와 브라질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가게 됐다. /김민근기자

군산상고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 준우승

군산상고가 제4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3년 만에 우승을 노렸지만 준우승에 그쳤다. 16일 오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대회에서 군산상고는 휘문고와 연장 13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3-4로 아깝게 역전패했다. 연팀은 팽팽한 투수전을 펼치며 9회까지 3-3 무승부를 이뤘다. 승부는 연장으로 돌입했고 13회말 휘문고 선두타자 최경호가 중전안타로 출루, 후속 타자에게 연속안타를 허용 무사 13루의 위기를 맞았다. 이후 다음 타자를 고의 4루로 무사 만루를 채웠고 휘문고 김재경이 끝내기 안타를 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듯 했다. 하지만 홈으로 들어오던 휘문고 3루주자 최경호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그라운드로 뛰쳐나오던 동료와 충돌, 홈플레이트를 밟지 못했다. 이에 군산상고측은 3루 주자가 홈플레이트를 밟기 전에 다른 선수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명백한 수비방해라며 어필했다. 결국 군산상고의 강력한 어필로 합의심판에 주지는 이웃 처리 됐으나 군산상고는 계속된 1사 만루에서 휘문고 고명규의 좌익수 끝내기 희생플라이에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군산=문정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